

研究論文

‘문학적 문체’의 개념과 문체연구의 위상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백 지 은*

-
- | | |
|-------------------------|-------------------------|
| I. 들어가며: 본질과 기능 | V. 나오며: 문체 중심의 문학사를 위하여 |
| II. 근대 문학과 문학적인 것 | <참고문헌> |
| III. 문체라는 콘텍스트 | <국문요약> |
| IV. 문학적인 것의 발견으로서의 문체연구 | |
-

I. 들어가며: 본질과 기능

일반적으로 말해 문학연구의 대상은 문학작품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일반 법칙이나 절대적 범주를 정립하는 것이 문학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문학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기존의 법칙과 범주를 뛰어넘어 문학을 사고하는 데 문학연구의 의의가 있다. 어떤 문자 텍스트를 ‘문학작품’이라고 부르게 된 사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일군의 문자 텍스트들이 (근대 한국) 문학(사)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것은 어떤 신념과 욕망에서 비롯하였는가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

지난 십여 년 간 한국 근대 문학 연구는 이러한 물음을 존중하여 지속된 다양한 모색과 탐구의 과정이었다. 그 결과, 오랫동안 한국문학의 주제, 양식, 역사 등을 이해하는 지표가 되어 주었던 민족문학의 이념이 지도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현대문학 전공(jienbaik@hotmail.com).

된 것을 대표적으로, 공고했던 기율들이 힘을 잃게 된 것은 어느 면으로 필연적이기도 하였다. 문학이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가변적인 범주와 상대적인 자장을 취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은 상식이 되었다. 문학은 언제나 자명하고 고유한 존재라고, 모든 문학에 고정 불변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한국문학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2001년 한 인터뷰에서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20년 혹은 40년 전에 ‘문학성’이라고 불렀던, 다시 말해 마치 언어가 내재적으로 문학 그 자체라도 될 수 있는 양 문학적인 것의 본질이라 불렀던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동일한 문장, 동일한 페이지가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는 문학에 속하면서 동시에 다른 맥락에서는 일상생활 혹은 신문기사에 속하기도 하기에, 이 텍스트는 문학과 저 텍스트는 그렇지 않다고 구분해 줄 내재적 분석은 없습니다.”¹⁾ 어떤 텍스트는 문학적으로 기능하며 다른 텍스트는 신문, 법조문처럼 일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일종의 관습들과 맥락에 따른 평가일 뿐이다. 어떤 언어(verbal) 텍스트를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정은 ‘문학성’이라는 본성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능의 문제다.

‘문학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 역시 유별난 인식은 아닐 것이다. 그 기능은 고정불변의 장치로서 텍스트에 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교환되고 널리 공유되는 콘텍스트의 일시성에 의존하여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한다. 이런 사실은, 몇몇 연구자들에게 간혹 잊혀지기는 해도 오늘날 대다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기능’이 문학성이라고 할 때의 그 기능이 ‘어떠한가’에 있다. 어떤 ‘작용’이면서 ‘효과’일 그 (기능적) 특성이 문학작품의 어떤 실천을 가리키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하는 조건은, ‘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과 자질은 텍스트 자체에만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외부의 삶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리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학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해도 이는 사실상 ‘문학’을 동어반복하는 입장을 조금 달리한 것일 뿐이지 문학성에 관한 새로운 술어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문학’이 영원불변의 자명한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 한, 이 말은

1) 자크 데리다 외(저)강우성 외(역), 『이론·이후·삶』(민음사, 2007), 45쪽.

별로 의미하는 것이 없다. (근대) 문학의 위기와 종언에 대한 말잔치 속에서, 문화와 풍속과 (탈)근대와 이론(Theory)의 틈바구니에서 비참과 영광을 오가는 사이, 마치 오래 지녀왔던 진정성을 상실해버린 듯 초라해 보이는 ‘문학’이라는 용어가, ‘본질’이 아니라 ‘기능’의 자리를 할당받는다고 해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피하게도 이 점을 새삼 되새겨 보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II. 근대 문학과 문학적인 것

먼저 ‘문학’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애초에’ 품고 있던 내용들을 새삼 환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일찍이 황중연이 정리하여 널리 알려진 바를 토대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 한국 근대 문학의 초기에 문학에 대한 사유와 논변의 새로운 방식이 열린 것은 이광수가 “문학이라는 역어”를 통해 “문학을 감각적, 감성적 삶과 연결하여 심미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주체를 산출하는 민족주의적 헤게모니에 편입”²⁾ 시킨 것에 의해서다. “육체적 감성적 인간의 자발적인 국민주체화는 미적인 것을 부르주아 민족국가에 대한 정치적 인준에 동원한 계몽주의 이후의 미학과 친연성”³⁾을 띠는데, 바로 이 같은 “미학 이데올로기”가 한국 문학에서의 근대성의 기초가 되었다. 이 미학 이데올로기의 실천이 한국 근대 문학에 있어서의 기획과 굴곡과 착종을 낳은 배후였기에 “한국 근대문학사의 고고학적 수정”⁴⁾은 이 미학 이데올로기의 전말을 추적하는 것과 무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의 주류는 (근대) 문학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레퍼토리와 민족문학의 이념을 상대화하거나 탈신비화하는 시도를 통해 근대주의와 민족주의를 함께 넘어서려는 이른바 ‘탈근대적’ 흐름을 이루었다. 이는 또한 (근대) 문학의 기원을 탐사하고 문학의 주변을 모색하는 고찰들로 이어져 풍속, 제도, 매체, 대중문화 등의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는 미시사적 연구로 다양화되었다. 그리하여

2) 황중연, 「문학이라는 역어」, 『동악어문논집』, 32집(1997), 477쪽.

3) 위의 논문, 478쪽.

4) 위의 논문, 478쪽.

기존 문학개념의 수정을 요구하고 기존 문학사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다발적으로 전개된 이른바 ‘문화론적 문학연구’는 “탈문학적인” 연구의 맥락을 형성하며 지속된다.⁵⁾

근래 국문학 연구의 주된 경향을 검토하면서 생각이 머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이는 이광수 이래 근대적 의미의 문학은 ‘미학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정리되었다는 점, 따라서 근대 문학에서 ‘문학적인 것’이란 바로 이 미학 이데올로기가 언어 텍스트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던 기존의 근대 문학사 면면들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어 왔다면, 그 이유는 다음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나, ‘미학 이데올로기’를 핵심적 문학 이념으로 파악했을 때 그것이 언어 텍스트에 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둘, 미학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이 문학성으로 정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 전자가 이유라면 근대적 문학성을 기능이 아닌 본질로 보았던 것이 문제고, 후자가 이유라면 문학성이 ‘그르케’ 정립된 것이 문제다. 실상 두 문제는 같은 논리를 타고 이어지므로 서로 별개인 것이 아니지만—문학성은 역사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는 기능이므로 역사적 단계마다 기존의 문학성은 재정립되어야 한다—중요한 차이는 지적되어야 한다. 전자는 기능의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획득되거나 상실된다는 주장이지만, 후자는 ‘본성’이 역사적으로 맞거나 틀리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유효성이 상실되었을 때는 어떤 기능 자체가 더 이상 기능적이지 않거나 그 기능을 작동시키던 요소가 그 자질을 잃었을 때의 두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본질이 틀렸다고 할 경우 새로운 어떤 것이 다시 본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문학연구가 근대적 문학성의 효능과 위상을 재고(再考)할 때,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역사적 태도는 전자 쪽이 아닐까. 즉 미학 이데올로기가 문학성으로 직결되었던 문학사가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지점에서 (미학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른 문학성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존의 ‘문학성’의 기본 내포였던 ‘미학 이데올로기’를 ‘틀린’

5) 국문학에서 출발한 ‘문화론적 연구’의 성과와 현 단계에서의 현실인식, 전망,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두 논자의 견해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한국 근대문학의 전환과 모색』(깊은샘, 2007); 차혜영, 「지식의 최전선: ‘풍속·문화론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문학사연구』, 33호(2007) 참조.

문학 개념으로 보는 의견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텍스트가 미학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것을 문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지점, 즉 문학성이 곧 미학 이데올로기로 환치될 수 없는 잉여 혹은 빈 곳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에 있다.⁶⁾ ‘미학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지 않았기에 (당시에) 문학에서 배제되었던 1910년대의 다양한 언어 텍스트들에서 “동시대의 가장 활발하고 실제적인 감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 논문⁷⁾이나 ‘현실을 전유하는 새로운 인식과 재현의 체계’에 착목한 논문⁸⁾은 ‘새롭게’ 문학성으로 명명될 수 있는 것들의 산출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런데 두 논문은 공히 기존 문학사에서 배제된 텍스트들로부터 기존 문학사가 포섭한 문학 양식의 자질을 찾아 언급함으로써, 한국 근대 문학의 이론적 정초가 되었던 문학성의 요소들을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문학이라는 경계를 트고 더 넓혀진 범주의 텍스트에서, ‘동정(同情)’(권용선)으로 포착된 특성은 근대적 문학성을 성립시킨 두 관점 중 최소한 한쪽, 즉 감각적·감성적 주체의 심미화라는 측면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 ‘재현(再現)’(신지연)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 자질은, “근대의 물적 토대에 의해 배태되었으나 근대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탐색된 글쓰기의 유형”으로 나아갈 때 “근대적 글쓰기의 침단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으로서의 문학형식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요컨대 문학 외의 영역을 주목한 이들이 도달한 결론은 근대적 글쓰기의 자질들이 더욱 “세련되고 안정된 형태로”⁹⁾ 나아갈 때 ‘문학적’인 것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취하게 된다.

6)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은 미학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문학적이었던 상황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는) 가능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그 권위를 부정하게 된 문학사들도 한때는 스스로 권위를 지닐 수 있었던 만큼은 문학적으로 합당한 서술들이었을 것이다. 가령 어떤 텍스트가 민족문학의 이념을 표상하도록 기능하는 것만으로 그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느끼게 했던 역사적 맥락이 존재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미적 주체와 민족적 주체의 동시 발현으로 인한 효과였을 것이다. 근래의 문학연구에서 민족문학의 이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되면서 다소 과도하게 재단한 경향이 있다면 그것을 민족적 주체 쪽에 편중된 시각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7)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8) 신지연,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재현성: 1910년대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9) 이해령, 「언어=네이션, 그 제유법의 긴박과 성찰 사이」, 『한국 근대 문학의 전환과 모색』(김은샘, 2007), 253쪽. 이해령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문학사의 권위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문학관념의 배타화를 거부한 데서 출발한 논의가 ‘문학’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

여기서 돌이켜볼 것은, 근대 문학의 이념에서 자유롭고자 하였던 많은 논의들이 주로 ‘민족문학’의 이념을 문제 삼았던 그때, 이의가 제기되었던 문학성이란 어떤 것이었나 하는 점이다. 대답부터 말하자면, 근대 문학성의 이념으로 정착되었던 관점 중 문학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감성적·감각적 주체를 심미화하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성적·감각적 주체, 즉 심미적 주체를 민족 혹은 국민이라는 정치적 인준에 동원하거나, 제도·매체 등의 사회적 인가에 예측시키는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였고 자기성찰이었던 것이다.

근대 문학은, 근대의 대다수의 것들이 그러하듯 국민국가, 민주주의, (출판)자본을 세 꼭짓점으로 하여 성립하는 삼각형과 길항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학은 언제나 삼각형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지향함으로써 사회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내부에 대한 반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의 표상과 이념적·정치적·풍속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고찰한 많은 논의들에서, 저 삼각형의 내부를 어떻게 표상하는가에 비해 삼각형 외부로 지향하는 일종의 심미적 경향이 어떻게 감각되는가를 따져보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능으로서의 문학성이 가변적이라고 할 때, 문학을 창출하는 감각적·심미적 주체의 기능인 문학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은 것은 심미적 주체를 민족적 계몽으로 모순 없이 연결시킨 논리에서 연원한 민족적·국민적 이념일 터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통감각이 이제는, 심미적 주체를 개인적 욕망의 주체로 보거나 집단적 풍속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고 “‘문학’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왜 근대적 글쓰기의 전범이 한국에서는 더욱 베타적인 ‘문학’으로 귀결되어야 했는가의 물음은 제기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문학이 첨단적이지 특권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조건과 그 안에서의 문학의 위치에 관한 더 많은 술어들을 발견하고 정교화하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그가 이 지점에서 밀고 가는 것은 “근대어로서의 민족어의 미래를 ‘문학’에 전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식민지 조선의 언어 내셔널리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언어=네이션’의 긴박 속에서 창출된 조선어 텍스트가 지니게 될 특정한 효과의 조건과 배경을 드러내 줄 요긴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문체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 문학적 표현의 세련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한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소명, 2008)의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어’의 성립과 ‘(한국)문학어’의 문제가 관계 맺는 방식이 상세히 밝혀진다면 ‘문학적’이라 명명할 수 있는 자질들의 발견에 직접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미적 주체’의 문학적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이 근대 예술의 한 영역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상상과 창조’로서의 문학 관념은 서양의 근대적 문학관을 참조하여 “전통적인 문 의 전체성”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예술로서의 문학을 성립시켰다. 근대적 문학 관념에 의거한 문학작품은 근대 한국어라는 ‘언어’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근대적 언어관의 지평 위에서 나온 근대적 글쓰기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문학작품이 ‘미적’ 형상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인식체계인 과학성, 효용성 등의 요건을 ‘넘어서서’ 생성되는 미적 양식(樣式), 예술적 풍격(風格) 등을 지향한다. 즉, 근대 언어관의 자장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자장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곧 (근대 이후의) ‘문학성’ 혹은 ‘문학적인 것’이 된다.¹⁰⁾

이는 이광수가 ‘정(情)의 능력’을 중심으로, 욕망하고 감각하는 인간의 자기 회복을 ‘미적인 것’으로 연결하였던 이론과 배타적이 아니고, 또한 문학을 음악, 미술, 무용 등과 동등한 하나의 영역으로서 포함시키는 근대 ‘예술’의 관념에 배리되지 않는다. ‘상상과 창조’를 기초로 근대적으로 재정립된 이 ‘문학’이라는 용어는, 한학적 전통에서 보다 포괄적인 함의를 지녔던 이 용어의 쓰임을 제한적으로 계승한 것에 서구적 장르의 분류법이 덧씌워져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문장 양식이 체화하고 있는 원리의 일부—가령 ‘상상력에 의한 언어의 형상화’와 같은 소인(素因)—를 자발적으로 상속받았음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¹¹⁾ 이 내용을 다소 비약적으로 간추리자면, 아무튼 ‘문학’이 근원적으로 ‘독특한 언어활동’이라는 점만은 변함없이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독특함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10) 때문에 근대 문학 제도의 영향 아래 형성된 시, 소설, 극 등의 장르 개념이나 운문·산문 구분의 층위, 국문체·한문체·국한문체·번역체 등의 문법, 어휘 층위와 관련된 문체 구분은, 이 글에서 논의하는 ‘문학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본다.

11) 이광수는 ‘문학’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상정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본을 통해 서구에서 들어온 영어 Literature의 역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거기에는 재래의 문학 유산에 대한 그의 무지와 편견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가 새로이 연 문학관과 문학담론의 일부는 재래의 문학관의 일부와 통한다는 것이다. 이광수의 ‘정의 문학관’은, 효용론적·도구적·공리적 문학관으로 풀이되는 근대 문학 일반의 특질과 다른 편에서 형성되었고, 전통적 문(文)의 세계에서 심미와 연관되는 원리들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지만 이 부분의 논거가 필요하다면 고문의 문체적 특질을 논한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태학사, 2003) 등.

심미적 예술 활동의 일부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가변적인 문학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도 조금 덜 복잡해질 수 있다. ‘문학’이라는 이름의 외연은 여러 방식과 형태로 변화 가능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작업하는 독특한 미적 특성’에 관한 것이라는 내포만은 여전히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¹²⁾

‘문학(성)’, ‘문학적 기능’ 혹은 ‘문학적인 것’이라는 말들을 안심하고 쓰기 위해 오래 돌아왔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사실 텅 빈 기표다.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서 나타난다기보다 이 텅 빈 중심의 주위를 둘러싼 활동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휘되는 효력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독특한 언어 활동은 존재하고, 그것을 가리키기에 ‘문학’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적인 것이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념적, 풍속적, 기타 모든 사회 관계적 그리고 ‘언어적’) 메커니즘이 변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만들어낸 ‘다른’ 혹은 ‘새로운’ 문학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경험되(었)는가’에 주목하는 일이다. 문학적인 것이 언어 내적인 보편 법칙에서 기인할 것이라는 가설을 믿었던 일파의 연구 세력—러시아 형식주의나 영미 신비평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연구 경향을 말한다—이 쇠퇴(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리되)면서, (탈)근대주의적 문학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사이, 문학성이 가변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졌으나 변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대한 노력은 다소 미진하였던 것이 아닐까. 이 글의 초두에 인용한 데리다의 말대로 언어 내재적 문학성을 믿은 것은 20~40년 전의 일이지만, 대칭적으로 말해 ‘언어 외재적 문학성’을 무시할 까닭이 새삼 등장한 것은

12) 문학을 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효과를 지칭하기 위해 ‘문학’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문학성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른바 ‘문화론적 연구’의 “탈문학주의”에 약간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더 이상 구래의 ‘국·문학’에 귀속되지 않”는 ‘문화론적 연구’가 “계속 ‘문학’의 일종으로 간주되더라도 그것은 이전의 그 ‘국·문학’과 이미 다른 지반 위에서 그러하다”고 한 천정환, 앞의 논문 40~41쪽을 참조해 보자. 가령 사회주의(문학)를 공부함에 있어 “민족 해방 운동의 조직 이념과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미학적 규범과 문학 양식 형성의 원리로 작동했던 사회주의에 대해 새롭게 탐사해나가려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문학’이라는 용어는 무시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까닭이 없다. 해방과 자유, 육체와 감각 등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문학적’ 자질들을 다른 용어로 대체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탈문학주의”라는 말은 과도하게 과격한 용어 선택이 될 수 있다. “탈민족문학주의”나 “탈근대문학주의”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목적이 확고한 문학적성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님을 또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버릴 수 없고 버릴 까닭이 없는 문학이라는 ‘현상’에 대해 유심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

III. 문체라는 콘텍스트

문학이 독특하고 근원적인 언어활동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보자. ‘독특하고 근원적’이라는 말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언어활동은 인간에게 매우 근원적인 것인데, 무수히 다양한 언어활동 중 어떤 ‘독특한’ 것을 가리켜 문학이라고 지칭한다. 이 ‘독특함(singularity)’¹³⁾이라는 것이 언제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고 결정되는 것이기에 문학을 유동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당하였다. 예컨대 근대 예술적 맥락에서는 ‘미적 자율성’으로, 국민·민족국가적 제도 혹은 제도화된 관념의 맥락에서는 ‘민족적 이념’으로, 또는 삶의 전체성이 파괴되지 않은 세계에서는 ‘우주와 인류 공통의 질서’ 등으로, 대표적인 역사적 관점과 독특함을 연결 짓는 설명도 가능했고 필요했다. 그러나 독특한 언어활동의 맥락은 반드시 언어의 어떤 조직이 얽혀들어 어떤 ‘사유’와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역사적인 ‘삶의 맥락’과 역사적인 ‘언어활동의 맥락’이 겹쳐 놓여 생성된 (언어의) ‘형상(形象)’에 그 사유와 상상력이 새겨져 있다. 그 형상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문학연구는 거기에 그려진 복잡한 흔적들을 영원히 말소시키는 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학의 존재 근거가 ‘언어’에 있는 한, 문학에 대해 말할 때 여전히 ‘언어’는 가

13) 일상 어법에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거나 평범한 것과 구별되는 유별난 것, 특이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구조주의 이후 프랑스 철학자들에 의해 널리 다양하게 사용된 개념으로서의 *singularité*의 뜻을 참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원이 부재하고 원초적 동일성이 부재한다고 하는 데리다 철학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를 참고하였다. 독특성은 일반성으로 포섭 내지 번역되지 않아야 하지만 모든 번역과 해석, (재)전유의 시도를 포기한다면 불가지의 형태로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이 봉쇄될 것이기에, 기입과 전송, (재)전유의 불가피성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재)전유가 환원불가능한 독특성의 (불)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이 용어의 한 내포로 두고자 한다.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클러/진태원(역), 『에코그래피』(민음사, 2002) 24쪽의 각주 7) 참고.

장 중요하다. 언어 내재적이라는 말에 반하여 언어 외재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고 말했을 때, 이는 언어와 무관한 어디를 가리키고자 함이 아니라 언어의 주변, 경계, 너머, 그리고 언어 이상 혹은 이전 등을 포함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문학’의 이름으로 주목하는 모든 현상은 일단 언어 텍스트—주로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가리키지만 음성 언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어(verbal) 텍스트라는 점이 필수적이다—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해능력(literacy)은 문자적 수준에서 차이 나지 않는 언어 텍스트들을 구별하여 가령 이것은 문학적이고 저것은 철학적이다, 과학적이다 하는 식의 경계를 인지하게도 하지만, “문학에 속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도 속하는 텍스트가 많아서 경계를 나누기가 어렵다”¹⁴⁾고 느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유사한 질료를 다루는 일련의 텍스트들에서 어떤 언어는 문학적으로 기능하여 문학적 효과를 내지만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문학적 효과를 생성하는 요소, 자질, 특성 등이 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문학적인 것’을 사고하는 일차적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 글의 첫 머리에서 “문학연구의 대상은 문학작품이다”라고 했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문학연구는 문학작품으로 분류되어 온 특정 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 텍스트가 문학적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특성과 자질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텍스트’가 문학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텍스트라 부르는 그 대상은 언어 내외적으로 다양한 콘텍스트들의 공유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우연한 자리이고, 그 작용들의 표지와 흔적이 고유한(singular) 형태로 드러나 있는 구체적 실체·대상이다.¹⁵⁾ 문학연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걸쳐 있는 콘텍스트 혹은 텍스트 너머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이 대상에 그 콘텍스트들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각 텍스트마다 다르게 머물고 다르게 작용한 그 흔적을 살피는 것이 우리

14) 자크 데리다(외), 앞의 책, 45쪽.

15) 이때 언어는, 텍스트 외부적 삶과의 강력한 연관에 의해 가령 ‘인간의 해방’과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텍스트 내적으로 화용적 상황과 언어 조직이 얽히는 조합 방식에 의해 가령 ‘미학적 폐탄’과 같은 효과를 강력하게 진작시키기도 한다. 물론 양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루된 채 존재한다. 문학적인 기능이 행사되는 메커니즘은 언어 내·외적 조건과 상황에 동시에 걸려있다.

에게는 중요한 임무처럼 느껴진다.¹⁶⁾

이때, 언어 텍스트의 ‘형상’에 주목한다는 것이 오해를 낳아서는 안 된다. 앞서 ‘독특한’ 활동으로서의 문학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독특한 사유이기도 하고 독특한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독특한 언어활동이다. 사유와 상상력을 언어와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하나로 취급하고자 하는 말이다. 사유와 상상력이 독특한 것은 오로지 독특한 언어활동으로만 가능하다. 언어의 형상을 뜯어보지 않고는 독특한 사유와 상상력을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언어의 형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문장[文]과 그것의 모임이 직조된 전체상[體]을 유심히 바라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고, 오직 이 방법에 의해 독특한 활동으로서의 문학은 발견될 수 있다는 믿음에 다름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문장들의 집합, 혹은 글의 몸, ‘문체(文體)’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언어의 형상인 글·말과 그것들의 집단체(body),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문체’라고 부른다. 문체를 읽는 것은 곧 텍스트의 형상, 텍스트의 독특함을 읽는 것이다.

16) 텍스트의 타자성을 공유하기 위해 풍속, 문화 등의 문학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연구는 거꾸로 그 외부가 어떤 언어로서 텍스트로 들어오는가, 어떻게 텍스트화 되는가를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텍스트 외부와 내부의 얽힘에 대한 연구로서 이경훈의 「현실의 전유, 텍스트의 공유」[『한국근대문학의 전환과 모색』(깊은 샘, 2007), 79~103쪽]라는 글을 참고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기영, 이상, 김기림, 이효석의 작품에 ‘쪼코렛’/‘초콜릿’이라는 사물이 놓이는 맥락을 통해 “각각의 텍스트적 질서를 초과하는 그 어떤 잉여와 불균등성이 파편적으로 맥락화될 수 있음”(101쪽)을 현시하고 그것이 텍스트의 질서와 현실 사회의 질서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활성화하는 “새로운 화행의 콘텍스트”(102쪽)를 조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초콜릿이라는 콘텍스트적 대상이 “텍스트가 침묵시킨 요소들을 들끓게”(102쪽) 함으로써 예컨대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텍스트 내부의 핵 단위, 촉매 단위, 징조 단위, 정보 단위 등의 기능은 변화”하므로 “초콜릿은 프로 소설을 둘러싼 “유아론적 반복”의 기원과 그 문학사적, 사회사적 위치를 반성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102쪽)고 하는 것은 ‘콘텍스트적 실천’을 밝히는 중요한 고찰이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초콜릿이 창출한 새로운 화행의 콘텍스트가 이기영의 『고향』을, 이상의 『홍행물 천사』를, 김기림의 『식료품점』과 이효석의 『마음의 의장』을 각각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가령 그가 예로 든 핵, 촉매, 징조, 정보 단위들이 각각의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다르게 배치되도록 만들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텍스트에 새겨진 ‘문학성’ 혹은 ‘문체’를 보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화적, 풍속적 맥락으로 텍스트를 개방하는 진짜 의미는 전자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후자로 나아가야만 생겨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창작과 비평을 주도했던 기존의 틀은 물론, 개별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의 경계와 근대성 자체를 넘나드는 또 다른 문체 계기와 반성의 근본적인 가능성이 발생”(102쪽)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말해지는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분리된다고 여기는 생각이다. 현대의 비평·연구에서는 수사학이 설득의 기술과 웅변술의 도구로 생각되었던 아주 옛날의 생각을 고집할 리도 없겠지만, 가령 ‘말은 사상의 옷’이라는 말로써 사상을 언어 이전의 형태로 치부하는 버릇은 가장 부정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형식이 다른 발화는 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언어학상의 가설이다.”¹⁷⁾ 그래서 문체를 읽는다는 것은, 비유컨대 단어들이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마치 벽이 벽돌의 구성으로 나타나듯이 텍스트가 각 단어 혹은 각 문장의 의미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버린다는 뜻과 같다. 우리가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벽돌들과 달리 근접해 있거나 멀리 있는 동료들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상관한다. 문체 읽기는 “담론의 어떤 부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발화되거나 발화되지 않은 담론과 그 조건들에 의해 의미가 생겨나는 독특한 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의미의 최소 논의를 단위들의 구조와 이들이 다른 단위들과 결합될 때 변화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¹⁸⁾ 다시 강조하건대 여기에는 삶의 맥락과 언어활동의 맥락이 동시에 개입된다.

삶의 맥락과 언어활동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우선, 언표(言表, énoncé)가 지니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¹⁹⁾ 인간의 사회활동

17) 블룸필드(Bloomfield)가 『과학의 언어면(Linguistic Aspects of Science)』이라는 논문에서 했다는 이 말은, 문학적 발화의 미학적 원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문학적) 발화의 고찰에도 해당된다. Hough, Graham, *Style and Stylistics*(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가르는 뿌리 깊은 습관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체연구에서도 고질적이다.

18) 벽돌의 비유부터 이 인용까지는 I. A. 리차즈(저)/박우수(역), 『수사학의 철학』(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9~10쪽 참고

19) 이하 언표(énoncé)와 언표작용(énonciation)에 관한 논의는 들뢰즈, 가타리의 언어학적 고찰을 참고하였다. 역사적 맥락에 걸리는 언어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한 유형의 언표는 그것이 화행론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발음하다, 진술하다, 서술하다, 선언하다 등의 뜻인 불어 동사 énoncer에서 파생된 저 두 명사를 한국어 번역으로는 주로 ‘언표’와 ‘언표행위’로 한다. 그런데 언표행위는 언표 자체를 수행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여겨져서 언표가 달성하는 행동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언표작용’이 낫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판 『천개의 고원』을 인용하면서도 énonciation에 해당하는 ‘언표행위’를 ‘언표작용’으로 바꾸어 쓰겠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저)/김재인(역), 「1923년 11월 20일: 언어학의 기본 전제들」, 『천개의 고원』(새물결, 2001) 참조.

은 거의 언어활동이지만 인간의 삶이 곧 언어인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삶에 질서와 명령을 주지만 발화들의 전체와 삶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행동과 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떤 언표가 직설법으로 어떤 행동을 기술한다거나 명령법으로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외적 관계도 있고, ‘말’과 ‘말로써 달성하는 행동’ 사이의 내적 관계도 존재한다. (‘나는 맹세한다’고 말함으로써 ‘맹세’라는 행위가 수행되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와 ‘~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질문한다’는 행위를 수반하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를 생각해 보자). 이 관점에서 언어는 정보로서의 기호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기능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과 언표 사이의 내적 관계를 ‘암묵적 전제’ 혹은 ‘비담론적 전제’라 부를 수 있다. 이 전제 위에서, 질문하고 가르치고 약속하고 보도하는 등의 언표는 의문, 지시, 서약, 단언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적으로 그러한 구체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작용한다. 저 암묵적 전제 위에서 언표가 내적으로 작용·행위(acte)를 하는 것, 그것을 언표작용(énonciation)이라 한다.²⁰⁾ 언표작용은 암묵적, 비담론적 전제에 따라, 언표가 수행되도록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²¹⁾ 예를 들어 부연하자면, A가 B에게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라는 언표를 발화하였을 때, 발화행위의 주체는 A이고, 언표의 주체는 ‘너(B)’이지만, 언표작용의 주체는 A도 B도 아닌, 언어에 선재하는 어떤 조건이다. 언표작용, 이 경우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되는 그 의미·사건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귀속되는 집단적 배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형이다. 물론 이 변형은 물질적인 변형이 아닌 비물체적 변형이다.²²⁾

20)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기초 단위인 언표는 ‘명령어’이고 언표작용의 기본 성격은 ‘명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령은 선행하는 기표작용과 무관하며 미리 조직된 변별적 단위들과도 무관하다. 정보는 오히려 명령이 지시로서 송신, 전송, 준수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치일 뿐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47~152쪽 참조

21) 방브니스트(Emil Benveniste)의 설명을 참고하자면, 누구라도 “나는 총동원령을 내린다”라고 소리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언표 할 권리를 부여하는 유효한 변수가 없다면 그것은 어린애 장난이거나 정신 나간 것이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해”도 마찬가지다. 그 말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 말을 하나의 진정한 의미로 만드는 상황이 없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주체도, 수신자도 가질 수 없다. 위의 책, 160쪽 참조

22) 들뢰즈, 가타리가 언표작용의 사회적 성격을 내재적으로 정초하려는 작업은 그들만의 고유한 작

중요한 것은 언표작용이 개인적이지 않다는 사실, “심지어 언표작용의 주체도 없다”²³⁾는 사실이다.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언표작용은 그 사회-체(體)에 귀속되는 비물체적 변형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물체적 변형은 자신을 표현하는 언표와 자신이 산출한 효과 간의 ‘순간성’, ‘직접성’, ‘동시성’에 의해 식별된다. 예컨대 “7월 4일에 소비에트 권력이 끝났다”고 선포되거나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유죄라고 선언되는 등의 언표는, 그것이 화행론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상황, 그 언표가 표현하는 내재적 작용이나 비물체적 변형과 관련해서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 언표작용은 집단적 배치를 변형하는 변수이고 이 변수들이 특정한 순간에 결정 가능한 관계에 들어가면 배치물들은 어떤 기호체제로 결합하여 한 사회를 가로지른다.²⁴⁾ 그렇다면 언표가 언표작용을 갖는다기보다 언표작용이 언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언표작용이라는 집단적 배치물이 갖고 있는 언표들은 어떤 의미에서 늘 간접화법일 수밖에 없다.²⁵⁾ 그래서 언표들을 대할

업이라기보다 많은 언어학자, 문예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강조하는 문제의식이다. 들뢰즈, 가타리가 참조하고 있는 뒤크로(Oswald Ducrot)는 정보와 코드, 의사소통과 주관성 같은 언어학 개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언어학적 전제” 또는 비담론적 내포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모든 언어학을 관통하는 화행론을 구성하였는데, 이로부터 “사법적”, “논쟁적”, “정치적” 관점에서 고려된 언표작용이라는 배치물에 대한 연구로 나아갔다. 바흐친(Bakhtin)의 ‘다성적 담론’과 라보프(Labov)의 ‘사회 언어학적 패턴’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언표작용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 것들이고, 부르디외가 ‘상징적 힘의 관계들’로 이야기하는 것도 언표작용 내부에 있는 변수들을 일컫는 것이다. 더 나아가 데리다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든 것을 지휘하는 법칙”으로서 선제(先在)하는 ‘언어에 대한 근원적인 서약(promise)’과 ‘해체적 읽기’로써 언어의 타자를 발견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관주의 뿐 아니라 구조주의에도 대립하는 언어의 작용에 대한 그의 철학을 감지할 수 있다.

23)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56쪽.

24) 예컨대, 만약 요즘 한 십대 청소년이 ‘미친소가 싫어요’라고 말한다면, 상황의 암묵적 전제에 의해 그 언표작용은 한국 정부의 미국과의 쇄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언표작용이 유효해지는 순간에 이루어진 어떤 기호체제 안에서 ‘미친소, 너나 먹으세요’, ‘미친소를 청와대로’, ‘광우병 피담’, ‘촛불문화제’ 등의 수많은 언표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이 기호체제는 요즘의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런 기호체제는 물론 한 둘이 아니고 한 사회에는 혼합된 체제들이 있으며, 알려진 체제에 아직 속하지 않았던 언표들이 순간순간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

25) “언어 전체가 간접화법이다. 간접화법이 직접화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직접화법이야말로 간접화법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이 추출 과정은 하나의 배치물 안에서 의미 생성의 작업과 주체화의 과정이 분배되고 귀속되고 할당되는 것이고, 배치물의 변수들이 잠정적으로나마 상수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64쪽 참조. 여기서 ‘직접화법’이 생생하게 현전(presence)하는 말(speech)이라면 ‘간접화법’은 부재의 기록

때, “진정한 직관은 문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전체와 관련해서 언표작용의 내적 변수들을 평가하는 데 있다.”²⁶⁾

이상의 논의를 언어 텍스트의 문체라는 관점으로 환언해 보자. 언표의 집합인 언어 텍스트에서 언표들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읽어야 하는 것은, 언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 이르는 언표작용이다. 언어활동의 의미와 가치가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항상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이 마치 연속적인 변주(變奏) 중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 언표는 그러므로 삶과 사회와 역사와 연결된 화행의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변주되는 언표작용의 ‘의명적인’ 형상이다. 이때 우리가 문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연속적 변주의 기법”²⁷⁾이고 이로써 드러난 언표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문체는 언표의 집합적 존재 양태보다 훨씬 폭넓은 형태로 존재한다. 그것은 텍스트에 나타난 언표들이 독특한가 아닌가와는 차라리 별개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안에서 그 언표들의 쓰임과 역할이 최대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언표작용의 독특한 형태, 단 한 번의 작용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반복(repetition)에 의해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독특한 무늬가 바로 문체다. 특히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텍스트에서 “경험을 그 경험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세계 안의 개인을 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대체하며,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기억을 현실적으로 실현된 창조물로 만드는”²⁸⁾ 과정을 우리는 문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반복으로 생겨난 우연한 무늬의 독특함”, 거기에서 미적, 예술적 지각(知覺)이 통찰된다면 그것 또한 텍스트 안에 갇힌 원리로서가 아니라 텍스트 바깥과의 연계 위에서 생성된 질서로서 나타난 것이다. “문체는 개인의 심리적 창조물이 아니라 언표작용이라는 배치물”²⁹⁾이기 때문이다.

낱말들은 특정한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발화자의 특정한 태도를 암시하기도 한다. 작가가 언어를 다루는 것은 자기 시각(vision)을 드러내는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의 의식적 주관성이 곧 문체라고 할 수는 없다. 작가 개인이 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무의식적이거나 잠재의식

(écriture), 없는 것을 언어로 구성하는 ‘글쓰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위의 책, 163쪽.

27) 위의 책, 189쪽.

28) 질 들뢰즈(저)/서동욱·이충민(역), 『프루스트와 기호들』(민음사, 1995), 166쪽.

29)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189쪽.

적인 주관성일 것이고, 그러한 무·잠재의식적 주관성은 관점과 입장을 명시하는 언표들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표들이 어울려 작품 전체를 울리게 하는 공명(共鳴)처럼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체는 작품의 것이기는 하지만 작가의 것은 아니다. 작품의 문체는 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표작용이 배치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의 삶의 맥락, 역사적인 사회의 맥락과 유리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요컨대 문체는 이미 ‘컨텍스트’다. 언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작성한 개인의 주관, 기질 등과 연결 지어져서도 안 되고, 특정 계급,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관되고 정합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이 사실을 의식한다면, 작품에 내적으로만 귀속된 언어 장식이나 작가라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취향과 태도를 반영한 언어 습관을 추적하는 연구로 문체연구를 치부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끓임없이 ‘언어’에서만 ‘문학 고유의 것’을 찾으려 하지만, 그 시도는 공허하다”³⁰⁾는 비판은 그 자체가 언어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 눈 감은 전제로부터만 가능해 보인다. 언표가 순전히 개인에게 갇힌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언어 텍스트로부터 그것이 미적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형상을 읽는 행위는 이미 ‘문학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연구의 일부이다.

IV. 문학적인 것의 발견으로서의 문체연구

‘문체’라는 용어는, ‘문학’이란 용어가 그랬던 것처럼, 근대 이전의 학문적 전통에서 쓰이던 용법과 달리 근대 이후 영어 ‘스타일(style)’의 역어로서 쓰이는 말이다.³¹⁾ 펜이라는 뜻의 라틴어 *stilus*에서 유래한 이 말은 마치 ‘우리 자신을 표현하

30) 천정환, 앞의 논문, 25쪽.

31) 문학(연구 혹은 작품)에서도 문체라는 말의 쓰임과 범주는 워낙 넓어서 일괄적으로 개념 정립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단어 차원에 구사된 미사여구의 수사법부터 텍스트 개작이나 페러디 양상과 관련된 상호텍스트성의 구명에 이르는, 텍스트 정독 방식에 의한 섬세한 ‘분석’과 관련하여 ‘문체론’ 혹은 ‘문체론적 분석’이라 이르는 것이 대다수다. 나는 문학작품의 문체란 언어학의 한 분야에서 분석의 재료로 삼는 문체와 달리, 작품이 발산하는 최종적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백지은, 『한국현대소설의 문체연구: 김승옥, 이청준, 서정인, 황석영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에서 밝힌 바 있다.

는 방법’이라는 뜻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왔다. (헤어스타일, 패션스타일, 라이프스타일 등의 일상용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문장 쓰기가 코드화된 문학양식 혹은 장르들에 의거하는 일련의 방법적 경향이 생겨날 때 문체라는 말은 규범적인 규칙들에 따라 글을 쓰는 방식을 의미하거나 규정, 모방, 모델과의 일치성 등을 표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히 근대 초기의 언어 텍스트에 대해 국한문혼용체, 순국문체, 언문일치체, 번역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글쓰기와 관련된 물적 토대의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에서 익혀온 근대적 지각 방식 및 글쓰기 방식을 한국어 글쓰기로 전유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말들이었지, 표현 방법의 독특함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는 아니었다.

문체를 ‘문장들의 몸’으로, 언어 텍스트의 독특한 형상으로, 그리고 언표작용이라는 집단적 배치물로 풀이한 이상, 우리는 이 말이 관여하는 범위를 기존 소설이론의 관습보다 더 넓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문체’는 ‘구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작품의 뼈대에 덧붙는 세부를 일컫는다면, 우리의 맥락에서 문체는 심지어 작품의 뼈대에 해당하는 구성의 영역조차 포함하는 것이 된다. 언어조직의 형상과 무늬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가 곧 문체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은 문체연구의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하는 듯 여겨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언어 텍스트를 다루는 모든 경우에 문체를 읽어내야 한다는 말은 일견 당연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문체를 의식하고 문체를 읽는 것은, 문학을 향유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새로운 언어 질서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정밀한 단계까지 모든 작업에 요청된다. 모든 좋은 문학연구는 물론 문화연구, 풍속연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인문학 연구, 나아가 언어적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와 비평이 문체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의 문체를 ‘연구’한다는 것, 즉 언어의 형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독특성들을 적실히 드러내고 해명하는 일이, 필연적이기에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조와 같은 큰 골격을 기늩하는 것과 작은 부분(detail)을 확대해 보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마냥 텍스트를 잘 읽자고 하는 권유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야말로, 뾰족한 펜끝(Styilet)처럼, 단검(Styiletto)처럼, 탐침(探針)처럼 단호하게 모든 단단한 것들을 공격할 것이다. 롤랑 바르트의 사진론 『카메라 루시다』에서 펼쳐진 유명한 구분을 참고할 수

있겠다. 한 장의 사진에는 지식이나 문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 의미를 만들고 스토리로서 읽히는 스튜디오(studium)이 있고, 그 사진을 바로 그 사진으로 만드는 폰크툼(punctum)이 있다. 스튜디오는 어느 정도 사진가의 의도와 운에 따라 양식화(stylized)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지각할 때 우리는 사진을 정치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훌륭한 역사적 장면을 즐길 수 있다. 사진 속의 형태들, 얼굴들, 몸짓들, 행동, 배경 등에 ‘문화적으로(culturally)’ 참여하면서 말이다. 바르트는 스튜디오가 일반적이고 “예의바른(polite)” 관심만을 불러일으킨다고 표현하였다. 스튜디오는 좋아함(liking)의 원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함(loving)의 원리 속에 둔 것은 물론 폰크툼이었다. ‘뚫다’라는 뜻의 punctuate와 관련된 이 라틴어는 스튜디오와 대립되는 요소가 아니라 스튜디오 속에서 스튜디오를 파괴하는 요소를 지칭하기 위해 쓰인다. 스튜디오를 읽을 때 우리는 주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 화살처럼 날아와 ‘나’를 관통하는 폰크툼은 ‘나의 의도나 의식과 관계없이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나’를 상처 입히는 작은 조각의 이름이다. 이것은 사진가의 의도로 생겨난다기보다 사고처럼 남겨진 얼룩이어서 오히려 스튜디오를 방해한다. ‘좋은 취향’과는 관계없는 이 자리에 무의식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다. 이것은 전체와 맞서지 않지만 전체를 뚫을 수도 있다. 낡은 허리띠, 찢은 이빨, 팔짱 낀 손, 조악한 장난감 등의 사례로 설명되는 그것들은 아주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울림으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개념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³²⁾

그러나 항상 “뽀족한 물체에 대한 문제”인 ‘문체’는 폰크툼의 자리와 어딘가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다. 데리다는 이것—문체—으로 “단호하게 철학이 물질이나 모형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을 관통시키면서 여기에 표적과 흔적과 형체를 남길 수 있다”³³⁾고 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한 비평집에서 폰크툼을 우리의 옛 시인의 생각과 연결 지은 경우를 찾아볼 수도 있다. 고려 시대 시인 강일용이 몇 달 동안 천수사 골짜기에서 해오라기를 보다가 “날아서 푸른 산의 허리를 가르네(飛割碧山腰)”라는 시구를 얻었는데 여기서 할(割) 자가 이 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시의 눈이라는 일화는 꽤 알려진 이야기다. 여기서 “이 구절을

32) Barthes, Roland, *Camera Lucida*, trans. by Richard Howard(New York: Hill and Wang, 1982) 참고

33) 자크 데리다(저)/김보현(번역), 「니체: 문체의 문제」, 『해체』(문예출판사, 1996), 250쪽.

시로 만드는 시의 중핵”인 이 한 글자를 자안(字眼)이라고 할 때 자안은 마치 풍크툼을 우리 식으로 옮긴 듯한 말이 된다.³⁴⁾ “이 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면 깨지는 어떤 독특한 분위기”³⁵⁾를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를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체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풍크툼 역시 사진을 바라보는 자의 무의식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무의식을 있게 한 개인의 삶과 역사 또한 개인의 자폐적인 일부로 국한할 수 없다. 풍크툼은 스튜디오와 별도로 있지 않다. 풍크툼은 제작자보다는 감상자의 입장이 투사되어 존재하는 요소지만 사회 문화적 맥락을 표현하는 스튜디오와 연루되지 않은 채 존재할 수는 없다. 다만 스튜디오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기보다 스튜디오 너머에 혹은 경계에 잠복해 있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언어 텍스트의 문체 읽기는 일차적으로 스튜디오 읽기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의해, 일정 정도 양식화(stylized)되는 요소인 스튜디오에는 이미 style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텍스트를 바로 그것으로 만드는 독특한 요소, 그것의 풍크툼, 자안을 알아보는 일이다. 그것이 모든 텍스트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리라고, 바르트의 말로 ‘그것이 나를 관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품의 문화적 의미, 사회적 주제, 역사적 맥락 등의 목록을 다 지우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는, 제거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문학의 이름으로 굳어 있던 것들을 해체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학적 것의 새 형상이 될 것이다. 문학연구가 문체연구를 요청하는 것은 기존 문학성의 이데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매번 문학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V. 나오며: 문체 중심의 문학사를 위하여

이상과 같이 문체란 각 작품에서 발견되는 독특함의 형태라고 정리했을 때, 문

34) 김인환, 『의미의 위기』(문학동네, 2007), 81쪽 참고.

35) 위의 책, 81쪽.

학적 문체연구의 오랜 딜레마이기도 한 일련의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발견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그것을 연구할 ‘과학적인’ 방법론이 있는가, 그것은 ‘개념화’될 수 있는가, 등등. 문학적 문체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스피처(Leo Spitzer)가 창안한 ‘문헌학적 순환법(the philological circle)’³⁶⁾에서부터 기능주의 언어학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문학적 문체연구의 딜레마는, 최초의 언어적 증거 발견을 연구자의 직관에 맡긴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신비평의 기반이 된 리차즈(I. A. Richards)의 “실천비평”이 학문적 연구가 일반적 비평으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귀결된 것도, 그가 제시한 독서법, 해석방법이 주로 속달한 문학의 독자가 늘 직관적으로 행해 온 것을 체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부추겼다. 더구나 스피처가 “이미 낮익은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해력을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진실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것이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진실이 새로운 생명을 다시 받게 된다”(『언어학과 문학사』)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 연구에 대한 비판에 대항할 자기 나름의 근거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체연구가 ‘낮익은’ 진실을 뒷받침할 ‘증거’ 찾기에 머문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의 도식을 전제한 관념적 이분법의 적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분법은 마치 문체라는 표현이 의식·이념이라는 내용에 외재적으로 대응된다는 식의 논리적 오류를 포함한다.

이처럼 문체 읽기가 과학적 방법론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문학’이라는 이름이 확고불변의 원칙을 갖지 않음과 관계있다. 문학적 텍스트의 유통 안에서 문학적인 효과는 최종적 결과임과 동시에 선제 조건이다. 또한 그것은 늘 새로운 것, 외부의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내부에 자리잡게 되는 인과로부터 달아나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문학적 효과라는 것이 논리(logic)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익숙한 질서에 의존하지 않기에 기존의 논리와는 다른 질서[another logic]가 요구되지

36) “예술 작품에 대한 상세한 관찰로부터 그 작품의 핵심을 논의하고 그 핵심으로부터 더욱 확증할 수 있는 세부를 찾아 바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해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은 몇 번이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 언어학적 순환법의 내용이다. 언어 특징이 주의력을 환기할 때까지 작품을 정독하는 것이 문체연구의 첫 단계라 한 그의 방법론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였으나, 문체연구에 연구자의 직관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선, 「문체분석의 구조주의적 연구」, 『국어연구』, 74호(1986) 참고

만 거기에 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텍스트에서 일관된 위치에 나타나는 항상성(constance)을 띠지 않지만 각각의 텍스트에서 상황에 따라 circumstance, 즉 고정된 것의 주위에(circum-stance) 나타나므로 그때그때 알맞은 논리(logic)의 질서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지는 문체는, 확정된 명사 혹은 동사로 말해지기보다는 그것의 유동적인 상태, 모양을 설명하는 형용 구문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 문학의 문체 분류의 용어로 사용되어 온 강건체, 우유체, 화려체, 건조체 등의 명사들이 사실상 문학적인 것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았음을 상기한다면, 요약 불가능한 형용의 구문으로 드러나는 문체읽기의 결과는 간명하지 않을수록 문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도 있다.

끝으로, 문체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글이 자리잡게 될 오늘날 우리 문학의 주변을 돌아보기로 하자. 이론(Theory)에 의존한 문학연구의 영역에서, 또 문학의 종언이라는 스캔들에 시달렸던 2000년대 현재의 문학현장에서, 문학의 지리가 축소되었다는 진단은 뚜렷한 것이었다. 이것은 소위 ‘문학장(場)’의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뜻하는 것인가? 그보다는 ‘문학적 텍스트’로 규정된 실체적 대상에의 천착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뜻일 것이다. 문학연구와 문학비평에서 모두 ‘문학’을 부재나 위기로 파악하는 근래의 현상이 새삼 새로운 문학성의 발견을 고무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다. 텍스트라는 실체, 책이나 문서의 형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대상은, 시공을 건디는 실물(實物)이면서 또한 그것이 놓인 역사·사회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인 잠재태(潛在態)이기도 하다. 텍스트의 문학적인 효과는 실물로서의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이미) 있는 것이면서 또한 그것이 놓이고 읽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아직) 없는 것이다. 문체연구는 이미 있는 것이지만 아직 없는 것을 찾기, 즉 텍스트의 초역사성과 문학연구의 역사성이 만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필연적 요청이 (과거와 연결되는) 다양한 경로와 만나 생성되는 불가피한 우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각 언어의 질서, 체계 혹은 그것의 세련화, 정교화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병행되고, 텍스트가 산출된 역사·문화적 의미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과거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현재적 간섭이나 연구자 개인의 개별적 직관 등이 무분별하게 개입되지는 않을 것이다.³⁷⁾

그간 우리 근대 문학 연구의 성과는 이러한 인프라를 이미 상당 부분 구축하였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좁게 구획된 시, 소설 중심의 문학관”이나 “고전 문학이나 현대문학 사이에 놓인 장벽”, “엘리트주의적이며 자폐적인 ‘문학성’ 개념”³⁸⁾ 등을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문학연구 혹은 문학사의 출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기다림을 단축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작업이야말로, 문체 중심의 근대 문학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질적 문체연구이다. 이 글의 논의가 문제제기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어질 문체연구의 과제를 위해 헛된 것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인환, 「스투디움과 풍쿠티움」. 『의미의 위기』. 서울: 문학동네, 2007.
 리차즈(저)/박우수(역), 『수사학의 철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미하일 바흐친(저)/이득재(역), 『문예학의 형식적 방법』. 서울: 문예출판사, 1992.
 발터 벤야민(저)/조형준(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서울: 새물결, 2005.
 백지은, 「한국현대소설의 문체연구: 김승옥, 이청준, 서정인, 황석영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신지연,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재현성: 1910년대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7) 역사 기술에 대한 벤야민이 과거의 이미지를 해독하는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과거가 현재에 빛을 던지는 것도, 그렇다고 현재가 과거에 빛을 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미지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과 섬광처럼 한순간에 만나 하나의 성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는 정지 상태의 변증법이다...변증법적 이미지만이 진정 역사적 이미지이다. 즉 태곳적 이미지가 아니다. 해독된 이미지, 즉 인식 가능한 지금 속에서의 이미지는 모든 해독의 기반을 이루는 위기적(kritisch)이며 위험한 순간의 각인을 최고도로 띠고 있다.” 발터 벤야민(저)/조형준(역), 『아케이드 프로젝트』(새물결, 2005), 1056쪽.

38) 천정환, 앞의 논문, 7쪽. 인용한 부분은 문화론적 연구의 당위성, 효용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문학의 주변을 살피는 문화론적 연구의 필요성으로 언급된 이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에 보다 집중하는 연구인 문체연구에 더욱 온당하고 적실하다는 판단에서 다소 역설적으로 이 부분을 인용하였다.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서울: 태학사, 2003.
- 이경훈, 「현실의 전유, 텍스트의 공유」. 『한국근대문학의 전환과 모색』. 서울: 깊은샘, 2007.
- 이태준(저)/임형택(해제), 『문장강화』.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8.
- 이혜령, 「언어=네이션, 그 제유법의 긴박과 성찰 사이」. 『한국 근대 문학의 전환과 모색』. 서울: 깊은샘, 2007.
- 자크 데리다(외 저)/강우성(외 역), 『이론·이후·삶』. 서울: 민음사, 2007.
- 자크 데리다(외 저)/진태원(외 역), 『에코그래피』. 서울: 민음사, 2002.
- 자크 데리다(저)/김보현(편역), 『해체』.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자크 데리다(저)/김용권(역),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 질 들뢰즈(저)/서동욱(역),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울: 민음사, 1995.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저)/김재인(역),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2001.
- 차혜영, 「지식의 최전선: ‘풍속-문화론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족문학사 연구』 33호, 2007, 83~107쪽.
-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한국 근대문학의 전환과 모색』. 서울: 깊은샘, 2007.
- 황중연, 「문학이라는 역어」. 『동악어문논집』 32집, 1997, 457~480쪽.
- Hough, Graham. *Style and Stylistic*.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 Barthes, Roland, *Camera Lucida*. trans. by Richard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2.

국문 요약

‘문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문체론’으로 생각되어 왔다. 문학작품의 문체에 대한 논의도 언어학적 문체론의 연구방법을 ‘문체 분석’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문체연구자들이 문학작품의 문체가 언어학적 문체 고찰로는 구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백해왔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학적 문체의 개념과 범주가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과 문체연구의 적절한 위상 마련을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씌어졌다. 문학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문학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일반 법칙이나 절대적 범주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칙과 범주를 뛰어넘어 문학을 사고하는 데 있다. 즉 어떤 문자 텍스트를 ‘문학작품’이라고 부르게 된 사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문학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일군의 문자 텍스트들이 (근대 한국) 문학(사)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것은 어떤 신념과 욕망에서 비롯하였는가 등의 질문이 요청된다. 문체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구체적 과정들을 이르는 말이겠지만, 이 글에서는 문체연구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기 전 단계로서, 몇몇 역사적인 구성체들의 핵심 및 범주를 재고하였다. 먼저 문학 혹은 근대 문학, 민족문학 등의 이념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학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위에서 독특성, 문체, 텍스트, 콘텍스트, 언표, 언표작용, 문체읽기 등과 같은 말들의 쓰임을 점검하고 개념을 정비하였다. 그럼으로써 문체연구가 문학의 자명한 고유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문학주의’로 매도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문체연구의 본질이 사회 역사적인 맥락을 중시하지 않고 작품의 내적 구조에만 치중한다고 비판받았던 영미 신비평의 방법론과 가깝다는 관습화된 편견을 깨고자 하였다. 이 글은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에세이적 시론에 가까운 글이지만, 앞으로 우리 문학사를 새로운 지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투고일 : 2008. 10. 10. ● 수정일 : 2008. 12. 7 ● 게재확정일 : 2008. 12. 10.
- 주제어(keyword) : 문학적 문체(literary style), 문체연구(style-study), 독특성(singularity), 언표작용(enunciation), 콘텍스트(context), 푼크툼(punctum).